

해남군 “왕우렁이 지금부터 관리해야 피해가 없어요”

왕우렁이 올바른 활용 방법 및 관리의무 교육 실시

“올바른 사용법 숙지하고 관리의무 이행하길 바라”

해남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왕우렁이 활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에 나섰다.

지난 4월 24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교육은 왕우렁이 활용능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활용 및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상기후로 따뜻해진 겨울 날씨 때문에 월동 왕우렁이의 생존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농번기 전 왕우렁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왕우렁이 활용능가의 의무사항

△왕우렁이의 올바른 활용방법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왕우렁이를 친환경 제초 수단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제초 효과가 뛰어나 벼농사 초기 논 잡초 제거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농작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논 밖으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관리

가 요구된다.

해남군은 왕우렁이 월동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동계작물 재배 및 논 깊이갈이 등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한 데 이어 영농기 전에 농수로 등에 서식하는 월동 왕우렁이를 수거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월동 개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이 고인 용배수로 등에서 월동 왕우렁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어 왕우렁이에 대한 예찰 및 세심한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왕우렁이 활용능가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왕우렁이 수거 등 관리의무를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



강진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확정 180억 원 확보

군단위 가운데 유일 선정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국·도비 142억 원을 포함 총 180억 원을 투입해 강진산단 내에 조성되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돼 앞으로 지역 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테크(C-Tech) 지식산업센터’로 방향을 설정했다. ‘기후테크’란 수익 창출과 함께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산업을 뜻한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강진군 고유 산업 특색을 반영한 전략이다.

특히 기후테크의 5대 분야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카본(Carbon)’, ‘에코(Eco)’, ‘푸드

(Food)’ 세 가지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자원 순환 및 친환경 제품 개발, 식품 생산 및 농작물 재배 과정의 탄소 감축 기술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망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진군은 기후테크 분야 유망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산단 내 공장 임주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앵커기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는 입주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와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시제품 제작과 정보 공유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진군은 이달부터 사전 건축기획을 본격 추진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유망기업 선제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환경산업진흥원 및 전문 투자사와 협력해 선정된 41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과 산업육성 방향 설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년간 사전 기업 유치와 중앙부처·국회 방문을 지속해온 결과, 대부분 시 단위 지자체가 선정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강진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도비 비율이 80%에 달하는 알짜 사업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강진군 특화산업과 기업육성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은 2일 완도치유페스타 현장안내소에서 서정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 환영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완도군 제공).

완도치유페이 두 달 만에 3000번째 이용객

완도군은 2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도입한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을 대상으로 환영 이벤트를 펼쳤다고 밝혔다.

‘완도 치유 페이’는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관광정책으로, 지난 3월1일 첫 번째 이용객 이후 두 달여 만에 3000번째를 맞았다.

이날 서정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임원들은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에서 완도 치유 페이 3000번째 이용객에게 쿠폰과 특산품을 전달했다.

이벤트 주인공 A 씨는 “여행도 즐겁고 ‘완도 치유 페이’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이벤트 행운까지 얻게 돼 기쁘다”며 “완도를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완도 치유 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방문해 주신 관광객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진도의 맛과 멋 녹아든 ‘울돌목 주말장터’ 개장

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운영

진도군은 ‘울돌목 주말장터’가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3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진도군에서 생산한 특산품과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요리를 판매해 상인들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장식은 연희단 ‘락풍’의 비나리, 삼도설창고, 국악가요 등 전통 국악 공연으로 시작된다. 문화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장터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울돌목 주말장터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여우러지는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